

碩士學位 請求論文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研究

指導教授 梁 淳 珽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允 中

1990年度

---

#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 研究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提出者 金 允 中

指導教授 梁 淳 玼

1990年 7月 日

---

金允中の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0年 7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主 審

①

副 審

①

副 審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目 次

I. 序 論 .....	1
II. 梅軒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	3
III. 朝鮮朝의 流配制度 .....	7
IV. 耽羅雜詠에 나타난 文學世界 .....	11
1. 耽羅의 위치와 漢拏山, 그리고 神話 .....	13
2. 耽羅의 歷史와 戀君 .....	16
3. 流配地의 環境과 五賢祠 .....	19
4. 耽羅의 生活과 風俗 .....	21
5. 耽羅의 進上品들 .....	26
6. 流配와 그 情感 .....	30
V. 耽羅雜詠의 國文學史的 位置 .....	34
VI. 結 論 .....	35
參考文獻 .....	37
Summary .....	39
附錄 .....	50

## I. 序 論

조선조 후기의 붕당정치는 숙종조에 들어서면서 왕위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 갈등이 치열하였다. 조선조 건국초부터 유학의 큰 흐름은 性理學으로서 그것은 우주나 삶의 근원을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유학의 한 분파였다.<sup>1)</sup>

정치적으로 君臣의 義理를 강조하고 붕당적 성향이 강했으며, 훈구파의 사장 중심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었던 신진 사림파들은 성리학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 성종조에 이르러 중앙정계에 진출,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서서히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수가 점점 늘어났으나, 관직의 보장은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르는 대립, 갈등은 구체적으로 史草를 통한 士禍로 나타났다. 1498년(연산군 4년)의 戊午士禍를 시작으로 기묘, 갑자, 을사 등의 사화로 많은 士林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는 조선조 500여년중 335년간 계속되었다.<sup>2)</sup> 여기서 정치에 참여한 사류들은 패하게 되면 권력을 잃고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나 오지, 외딴섬에서 격리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특히 濟州島는 격절성, 환해성, 협소성을 지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sup>3)</sup> 고려 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유배지의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조선조때 제주도는 최고형을 받은 유형수들이 유배되어 온 최악의 지역이었다.

정치적인 유배생활은 유배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운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나 국문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창작의 좋은 계기가 되어, 훌륭하고 찬연한 국문학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流配文學이란 유형수가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 체험과 그 감정적 내

1) 李基白, 「한국사 신론」, 일조각, 1977. p.200.

2) 이이화, 「한국의 파벌」, 어문각, 1984. p.85.

3) 梁淳秘, 「朝鮮朝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p.3.

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悔軒 趙觀彬은 신임사화 (1722)의 전말을 상소한 것이 탕평책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1731년(영조 7년) 10월에 제주대정현에 유배되고 이듬해 6월에 석방되었다.<sup>5)</sup> (1731.10~1732.6) 본 연구는 회헌 조관빈이 제주대정현에 유배되어 창작한「탐라잡영」22수를 대상으로 역사적 사회적 방법론과 분석적 방법론을 원용하여 작품을 고찰하고 그것이 지니는 국문학사상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4) 梁淳秘, 위책, p. 8. 선학자들이 유배문학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趙潤濟, 「韓國文學概說」, 東國文化社, 1955.
  - ②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 ③ 敍東鈇, 「流配文學攷」, 文湖 창간호, 1960.
  - ④ 丁益燮, “流配文學小攷”, 「无涯 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 東國大學校, 1964.
  - ⑤ 金永琪, “流配文學論”, 「現代文學」, 통권 147권, 現代文學社, 1967.
  - ⑥ 文璘權, “流配歌辭의 內容的 考察”, 「全南大學校 語文論集」 5집, 1969.
  - ⑦ 梁淳秘, 「李朝流配文學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69.
  - ⑧ 趙成桓, “국문학과 적소관계”, 「군산교육대학 논문집」 7집, 1974.
  - ⑨ 李相寶, 「韓國歌詞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74.
  - ⑩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 下, 二友出版社, 1976.
  - ⑪ 秦東赫, “李世輔의 流配時調研究”, 「단국대학교 논문집」 15집, 1981.
  - ⑫ 池鍾玉, 「流配詩歌研究」,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 ⑬ 梁淳秘,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 ⑭ 최상은,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문학연구」 3, 경원문화사, 1984.
  - ⑮ 高定佑, 「桐溪 鄭蘊의 流配漢時 研究」, 濟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6.
  - ⑯ 梁淳秘, “文學社會學的 시각에서의 流配文學考”, 「金起東박사 회갑기념논총」, 1986.
  - ⑰ 梁淳秘, “유배문학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성격고”, 「朴堯順先生華甲紀念論集」, 1987.
  - ⑱ 金基鉉, “秋史散文中에 나타난 夫婦像”, 「고전문학연구」 제4집, 1988.
  - ⑲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⑳ 金周坤, “流配歌辭에 나타난 忠節意識의 樣相”, 「영남어문학」 제16집, 1989.
  - ㉑ 梁淳秘, “趙觀彬의 耽羅雜詠考” 「송하 이종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9.
- 5) 「英祖實錄」 권2 즉위년 11월 丙午年.

## Ⅱ. 悔軒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趙觀彬은 1691년(숙종 17년)에서 1757년(영조 33년)까지 在世한 정치가요 문신으로 자는 國甫, 호는 悔軒, 본관은 楊州, 노론 4대신중의 한 사람이며 우의정을 지낸 趙泰采의 아들이다. 1714년(숙종 4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이듬해 검열이 되고 이어 부수찬, 수찬, 전적을 역임했고, 대간의 탄핵으로 한 때 파직되었다가 이조 참의로 기용, 1719년(숙종 45년)에 승지, 1721년(경종원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조관빈이 활동한 조선조 후기의 붕당정치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갈등이 치열하였다. 조선조에서 붕당이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건국에 참여하여 정치적 기득권을 잡은 훈구파를 견제하면서 차츰 조정에서 득세한 15세기 후반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훈구세력과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붕당의 문제가 지적된 것은 16세기말 사림세력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즉 집권한 사림세력이 東人, 西人으로 갈라지면서 붕당사이의 갈등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때 李栗谷 같은 사람은 이를 근심하여 파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파쟁은 더욱 심해졌다.

사림의 집권으로 그 어떠한 붕당이라도 사림을 기반으로 하고 성리학적 체계를 이념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용인되었으므로 붕당정치의 전개는 필연적이었다. 실제로 17세기에는 西人과 南人이 공존하면서 붕당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안정적으로 전개되었다. 붕당정치가 어느 정도 건실하게 전개되면서 소수 붕당의 존재도 허용되고 그들에 의한 공개적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여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조화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척신세력이 크게 대두하여 성리학의 이념체계가 퇴색하면서 상대 세력의 공존을 생명으로 하는 붕당정치의 원칙은 점차 깨져갔다.

재야의 사림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훈구파세력과 정치적 갈등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은 군자로서 자처하고 권세로써 비리를 자행하는 훈구파세력을 小人의 당이라 규

탄했으나, 16세기말 사림파가 정치적 우세를 획득하면서 문제는 달라졌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그리고 노론과 소론으로 사림세력이 분파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학맥에 근거하여 결성되어 그 어느 쪽이건 爲學修己의 노력을 통한 군자의 당이란 면모를 보이려고 하고 있었기에 당이 다르다고 하여 서로를 부정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특히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로서 정치에서의 公道의 실현을 주장하고 추구한다고 하는 각 봉당은, 이해를 가지고 상호 배제하는 私黨의 입장과는 公黨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sup>6)</sup>

1680년(숙종 6년) 척신세력을 바탕으로 집권한 서인은 철저한 탄압으로 남인의 재개를 막고자 이른바 庚申大黜陟을 단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許積, 尹鑄 등 남인의 주요 인물이 거의 모두 주살되었다.<sup>7)</sup> 이에 따라 봉당정치의 바탕은 무너지고 상대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黨人들은 歐陽修의 眞朋論에 의거하여 자신들은 眞朋이요, 상대방은 僞朋 또는 小人이라 공박하였다. 그리하여 봉당사이의 역학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그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정계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계속되었다. 봉당정치의 말폐적 현상으로서 나타난 일당전제의 추세와 정치의 무질서속에서 탄압은 보복을 불러 일으켰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야기하였다.<sup>8)</sup> 봉당사이의 역학관계가 깨지면서 특정 봉당의비대화로 왕권이 크게 약화되고 노론 또는 소론이 전제권력을 행사하면서 왕위 계승 문제까지 그들의 당리당략과 결부되었다. 정치는 몇몇 閥閥家門에 의해 중단되었고, 정계 활동에서는 공론에 의한 봉당보다는 개인이나 가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sup>9)</sup>

노론·소론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은 庚申大黜陟, 甲戌換局, 己巳換局 등의 연속된 정치적 사건에 이어 숙종의 후계인 왕위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하고 복잡하게

6) 李泰鎭, “조선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p.41.

7) 『承政院日記』 276冊 숙종 6년 4월26일조, 5월5일, 20일조.

8) 성락훈, 『한국당쟁사』(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68. 참조

9) 황원구, 『閥閥政治』(한국사 13), 1978. p.79.



대립하여 忠逆의 시비분쟁으로 전개되어 갔다. 1722년(경종 2년) 辛壬士禍의 발생은 바로 치열한 왕위계승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본래 숙종에게는 正妃 소생이 없었고 장희빈 소생(후에 경종)과 宮人 崔氏 소생인 延祔君(후에 영조)이 있었다. 1690년(숙종 16년) 숙종은 불과 3세밖에 안된 장희빈 소생을 세자로 책봉하였으나 원래 병약하고 고질이 있어 춘추 30에 가까워도 후사가 없었다. 결국 병약한 경종을 옹호한 소론과 왕세제인 연잉군으로 하여 경종의 대리청정을 하게 하려던 노론이 소론에게 맹렬한 탄핵을 받아 이것이 빌미가 되어 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 등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주요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신임사화이다. 소론은 노론을 대거 숙청한 후에도 경종의 殺逆까지 꾀하였다는 등의 음모까지 꾸미면서 노론을 공격하였다. 1722년(경종 2년) 생부 태채는 신임사화의 화를 입어 진도에 유배된 후 사사되었고, 1723년(경종 3년) 가족들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승빈은 제주 대정현으로 관빈은 나로도, 10) 검빈은 거제도, 승빈의 처는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11) 이른바 온가족이 유배를 당하는 불운을 겪었다. 영조가 즉위하자 조관빈은 1725년(영조 1년)에 풀려나와 제학에 등용되고 이어서 동지의금부사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영조가 등극한 후 無備不黨, 王道蕩蕩, 無黨無備, 王道平平으로 탕평책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이 정책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贊蕩派와 反蕩派 대립이 계속 되었는데 영조로서는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탕평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 그의 당색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당파간 분열 대립이 너무 심해지자 숙종조 당시부터 당파간의 정치세력의 균형을 꾀하여 이른바 탕평책의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 영조, 정조와 같은 영주가 나와서 당파간의 알력은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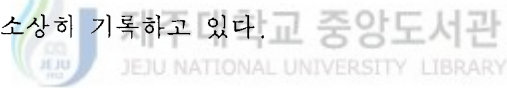
그러나 완화되기는 했어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상소와 탄핵이 잇따라 서로 분열되고 유배당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하에서 조관빈은 1727년(영조 3년) 동지돈녕부사로 재직중 생부인 趙泰采를 비롯한 노론 4대신을 죄

10) 「國朝人物志」Ⅲ, “壬寅被謫珍島賜死” p.215.

11) 梁淳琰, 「앞책」, p.61.

적에서 삭제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어 1731년(영조 7년) 10월 대사헌으로<sup>12)</sup> 재직 중 신임사화의 전말을 규명할 것을 상소하고 소론의 영수 李光佐를 극론했다가 당파심에 의한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했다는 죄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었다.<sup>13)</sup> 조관빈은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중 한라산에 등정하여 “대사헌에 있던 중 간언에 관한 일로 제주에 유배되어 이 한라산 절정에 올랐다”(以大可憲言事 被謫 登此絕頂)하는 磨崖銘을 남겼다.<sup>14)</sup> 관빈은 이듬해 6월 석방되었으나<sup>15)</sup>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1740년(영조 16년)에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742년(영조 18년)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뒤 1743년(영조 19년) 대사헌을 지내고 1744년(영조 20년) 호조판서를 역임하였으나 영의정 金在魯와 불화하여 다시 면직 되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1746(영조 22년)에 예조판서에 전임되었다. 1753년(영조 29년) 대제학을 겸하다가 이 해 竹冊文의 제진을 거부하여 星州목사로 좌천되고 이어 三水府에 안치되었다가, 곧 단천에 移配된 후 석방되어 知中樞府事가 되었다.

회헌은 1757년(영조 23년)에 졸하였으며 시호는 文簡이고 저서에 「梅軒集」이 있다. 그의 從孫 趙貞喆은 정조를 시해하려는 역모에 연루되어 33년 유배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28년이나 머물렀는데 원통한 심정을 「靜軒瀛海處坎錄」이란 시집으로 엮었으며 시의 서문이나 발문에 해당하는 산문 기록을 곁들여서 제주도민의 당시 생활에 관한 관찰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 12) 崔完基 “18C 봉당의 정치적 역학관계” 『정신문화연구』, 1986, 여름, pp. 86~90 참조. 영조는 탕평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에는 그의 당색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으며 영조 3년 12월에는 說書 俞崔基를 삭직하고 문외에 출송하였고 동지의 금부사 金相玉을 극변으로 유배시켰다. 동왕 5년 윤7월에는 부수찬 鄭弘祥을 제주에 유배시켰던 것을 들 수 있다.
- 13) 「承政院日記」, 제733책, 영조 7년 10월27일조.  
 “敎曰趙觀彬初疏 已示微意 及其再疏 露出黨心 噫今之恢蕩 欲扶將亡之國勢 則渠雖急於私讐 獨不念公平 況今之此舉……(中略)……其職則都憲也 其所參酌 惜其職也 其竄于大靜縣”
-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濟州磨崖銘拓本特別展」 1989. p. 33.
- 15) 「英朝實錄」, 8년6월 甲子 “命放 趙觀彬之謫”

### Ⅲ. 朝鮮朝의 流配制度

流刑은 중죄를 범한 자에게 死刑까지는 科하지 않고 遠隔地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sup>16)</sup> 일반적 유형의 본질은 자유형과 비슷하나 死刑의 換刑으로서 사형 완화법으로 이용되는 데 있었다.<sup>17)</sup>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분 국사범으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게 과해졌다.

이러한 유형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료에 의하면 이미 삼국시대때부터 있었던 것으로<sup>18)</sup>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삼국시대의 유형은 수나라,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당률을 모방하여 死·流·徒·杖·笞 등의 五刑을 고려율로 확정하였다. 고려조 유형의 기준은 유배지의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그 경중을 책정하여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 바 있었다. 그리고 流 2천리는 杖 17·징역 1년 贖銅 80斤, 流 2천500리는 杖 18·징역 1년 贖銅 90斤, 流 3000리는 杖 20, 징역 1년 贖銅 100斤 등의 속형제를 인정하였다.<sup>19)</sup>

조선조에 와서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형집행 관원은 무릇 공사간의 범죄는 반드시 대명률에 의거해야 한다고<sup>20)</sup> 선포하였다. 조선조는 건국초 고려율과 같이 오형을 택하고, 大明律에 준한 형벌을 행하기 위하여 따로 실정에 알맞게 徒刑 流刑, 贖刑 등을 정하였고 大明律에 기록된 里數는 조선의 리수로 계산하여 속전의 일부를 감하였다. 조선조의 유형은 반드시 장형을 병과하였고 유 2천리 장 1백 유 2천5백리 장 1백, 유 3천리 장 1백 등 세 등급이 있고 매 5백리다 형 1등

16) 「大明律直海」, 名例律 五刑名義 “流配謂人犯中罪刑殺流法遠方 終法遠法 終身不得回歸”

17) 法文社編, 「法律學辭典」 法文社, 1968. p. 701.

18) 「北史」 百濟傳, “其刑罰 叛逆退軍及 殺人者斬 盜者流”

19) 「高麗史」, 권38 刑法志 流刑條

20) 「太祖實錄」 卷1 元年 壬申 7月 乙巳條 “自令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이 가감되었다.<sup>21)</sup>

조선조의 유배형기는 원칙적으로 무기 종신형이었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단죄가 된 유배자는 군왕의 사면령과 정치정세의 변동이 없는 한 한평생 유배지에서 석방되어 귀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당파적, 세도적 정치 상황에 따라 사면이 되기도 하는 등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치 못하였다.<sup>22)</sup>

流刑에는 遷徙, 付處, 安置의 세가지가 있었다.

遷徙는 “遷離鄉土一千里外”로서 범죄인을 고향에서 천리나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침해적 상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있었다. 천사에는 全家徙邊이란 것이 있는데 가족을 유배지와 함께 멀리 극변의 벽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가혹한 형벌이다.

付處는 中途付處의 준말로써 일반 관원에게 과해진 일종의 형벌이다. 유배자에게 그의 진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지내게 하는데 유배지의 현관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 조치를 맡긴 형벌이다. 부처는 유생에게 대해서도 관원에 준하여 적용되었는데 종종 때 尹衡을 외방에 부처시킨 일이 있고<sup>23)</sup> 이 부처의 가중죄로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安置에는 本鄉安置, 絶島安置, 圍籬安置 세가지가 있었다. 본향안치란 죄질이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죄인의 고향에 유폐시키는 것이다.

절도안치는 유형 중 가혹한 격리 조치인데 무인도나 그밖의 도서에 안치시키는 형벌이다. 이른바 중죄인에 대한 조치인데 극악한 경우 독사나 독충이 서식하는 곳에 안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위리안치란 죄인이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유폐시키는 것인데 연금에 해당하는 형벌로 중죄인에게 내리는 것이었다. 대체로 유배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동반할 것을 원한다면 허락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위리안치의 경우는 大明律에서는 가족과의 동거를 허락하였으나<sup>24)</sup> 조선조에서는

21) 「大明律直解」, 名例律 五刑名義.

22)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研究” 제주대석사학위논문, 1988, p.13.

23) 「中宗實錄」卷11 五年 庚戌 四月七日條, “上命尹衡外方付處”

24) 「大明律直解」, 名例律五刑名義, “凡犯流者 妻妾從之 父祖子孫欲 隨者聽”

“不可興家屬混處”라고 하여 허락하지 않은 점에서 가혹한 유형이었다. 정치적 유배자의 제주 유배는 모두 이 위리안치였다.

조선조의 유배지 선정은 遠配와 島配로 나뉘 볼 수 있다. 도배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책정되고 유배지나 적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정세나 죄인의 정치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조선조의 형률제도에 결함이 있다기보다 이 제도가 당쟁에 이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조의 권력, 정치 질서의 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원배보다 도배를 더 중시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유배는 사형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다. 그러나 유배된 사대부들은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고독·절망·불안·빈궁 등을 동시에 겪게 된다. 그들은 처음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충격에 직면한다. 유배자들은 군주의 특별한 사면에 의해 석방되는 경우도 있으나 유배안치가 되었다가 바로 賜死를 당하는 일도 있어 유배야 말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조 대부분의 유배자들은 당쟁에 관여하여 유배를 갔다 왔다 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조의 유배당한 사대부들은 그들의 정치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유배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 출사하여 유배당하고 은둔하거나<sup>25)</sup> 출사하여 유배당했다가 재등용하는 과정 등은 모두 유배되는 동안 자신의 인생관과 관련하여 결정되었다. 유배지에서 놀랄만한 名文 하나로 군왕을 감동하게 하여 해배, 재등용되는 경우도 있었다.<sup>26)</sup>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현실의 집착을 거세하고 아무런 희망과 연결되지 못하는 극단의 절망감과 외로움을 가져왔다. 유배자들은 이제는 죽음과 파멸만이 있을 뿐이라는 자기상실을 실감하게 되고 비분강개한 절망, 낙백은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암담한 것이었다.

조선조 당쟁에 관여한 사대부 지식층들의 유배는 행률의 형사처분에 따른 配·謫 따위가 아니라, 정권쟁탈의 승패와 왕의 주관에 의해서 명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25) 정병욱, 「고산 윤선도」 「문학사상」, 1974. 1월호 pp.293~300. 참조.

26) 梁淳秘, 앞책, p.22.

유배자들은 유배를 정치적 형벌에 의한 즉결 추방으로 여겼으며, 왕의 소명으로 석방될 것임을 굳게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치열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내면 세계의 확장과 현실의 모순에 대한 극복논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 IV. 耽羅雜詠에 나타난 文學世界

悔軒 趙觀彬의 「耽羅雜詠」을 검토하기에 앞서 조선조의 문학관을 대강 살펴보는 일은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조선조 문학관의 대전제는 道文一致의 관념이다. 조선조의 건국이념 자체가 성리학에 근거를 둔 이상 성리학의 문학관인 도문일치는 역시 자연스럽게 조선의 문학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도문일치란 대체로 문장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전체 위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지만 사실상 그 관념 속에는 貫道論과 載道論이라는 상이한 견해의 흐름이 있어 왔다. 관도론은 이른바 문이관도를 주장하는 고문파의 입장으로서 이들은 문이 도를 밝히는 수단이라는 전체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와 문을 분리시켜 보고자 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관심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일면이 있다. 이러한 관도론적 문학관은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사장파의 문학관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관도론적 문학관의 배경에는 宋代 성리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세계관 및 낙관적 인간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관도론에서 강조하는 道는 인간의 도덕적 완결성을 지향하는 현세적 규범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재도론은 이러한 道를 배타적으로 절대화 시킴으로써 도가 지닌 규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재도론은 현실에 가장 밀착되어 효용론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문학의 구체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性悟之正과 같은 절대적인 척도를 내세움으로써 문학은 도의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도론적 문학관의 주장과 논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를 이퇴계와 이율곡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17세기로 접어들어 宋時烈에 이르면 재도론적 문학관은 이 시기에 대두한 여러가지 사상적인 다양화의 경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등장하였으며, 재도론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외적으로는 명의 몰락과 청의 등장, 안으로는 사상적인 분파와 병행한 치열한 당파싸움으로 말미암아 주자학의 화이론적 질서관 및 예론은 핵심적인 논의의 쟁

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 뒤에는 주자학적인 명분론 내지는 전통론적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있어서도 재도론적 문학관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문학관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사상에 대한 재도론의 반격 또한 치열한 것이었다. 사상적인 반론과 병행하여 등장한 새로운 문학관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재도론적인 반론은 이퇴계나 이율곡의 경우보다 더욱 경화된 규범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양상은 한말까지 계승되었다. 회현 조관빈은 당색으로 보아 송시열의 노론 계열이면서도 강경론자에 속한다. 회현은 같은 당색을 계승한 사람이므로 일단은 우암 송시열의 재도론을 회현 조관빈이 계승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그러한 점에서 회현 조관빈은 재도론의 전통적인 문학관에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趙觀彬의 「회현집」에 수록되어 있는 탐라잡영은 모두 22수이다. 이 22수의 잡영은 한시의 형태면에서 각 수가 7언 절구로 되어 있다. 그는 제주 유배 기간에 유배 생활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정서를 22수의 잡영에 표출하였다. 잡영이란 雜吟이라고도 하는데 갖가지 사건이나 계절적 느낌, 심경의 변화 등을 있는 그대로 읊은 시가로서<sup>27)</sup> 특별한 제목이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쓰여지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시를 지음에 있어 일정한 제목이나 내용 형식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사건 사물 심경 등을 접했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해 놓은 문학을 잡영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곧 잡영이 한시의 절구·율시 등과 다른 점은 시의 형성에 있어서 그리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구·율시 등은 사물이나 사건이거나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틀에 담아야 하는 제약성이 따르지만, 잡영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러한 시의 형식은 竹枝詞의 七言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시의 형태이다.

「悔軒集」에 수록되어 있는 탐라잡영은 제1수에서 제22수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라잡영은 대체로 1) 탐라의 위치와 한라산, 그리고 신화 2) 탐라의 역사와 연군 3) 유배지 환경과 오현사 4) 탐라의 생활과 풍속 5) 탐라의 진상품들 6) 유배와 그 정감 등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해 볼 수 있다.

27) 新潮社, 「改訂新潮國語辭典」日本 新潮社 1977, p.799.

28) 梁淳秘, “조관빈의 耽羅雜詠考” 『송하 이종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9, p. 143.



## 1. 耽羅의 위치와 漢拏山, 그리고 神話

### 첫째장

탐라는 가장 거친 땅  
사면의 바닷물은 아득히 구름에 닿네.  
남쪽으로 유구,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 중국의 항주, 소주라네.

### 耽羅雜詠 其一

耽羅一城最荒垠 四面滄溟水接雲  
南則琉球東日本 西惟中國杭蘇云

탐라잡영의 서시로서 절해고도인 제주섬의 위치를 노래하고 있다. 제주섬은 사방 어느 곳을 둘러 보아도 끝없는 바다요, 나갈 길은 막막하다.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섬 환해고도인 것이다.<sup>29)</sup> 이러한 점에서 제주가 환해고도라고 하는 지리상의 위치가 새삼스럽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중원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격절한 지역인 항주와 소주는 제주섬의 서쪽에 있다는 현세적 의미보다 회현이 그만큼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남단의 고도에 유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회현은 자신의 처지가 바로 고도처럼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제주섬에 유배된 경우 대개 절도 위리안치가 많았다. 그것은 고립된 섬에서의 생활 자체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다.

### 둘째장

한라산이 검게 솟아 형세는 날따라  
큰 바다 중에 솟아나와 우뚝하구나

29) 內務部, 「島嶼誌」, 1973. p.10.

예부터 영주라 부르더니 뜬 소문이 아니구나  
반공에서 생블며 학과 함께 노니는 신선을 만날 것 같구나.

### 耽拏雜詠 其二

耽拏黑立勢周遭 大海中間湧出高  
舊號瀛洲非浪語 半空笙鶴有仙曹

대해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의 선경을 노래하고 있다. 제주섬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인 한라산의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고 주나라의 태산과 비교할 만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또 검은 빛으로 다가오는 한라산은 회현을 충분히 위압하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생학이 신선의 무리를 이루어 있고,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해서 삼신산, 영주산이라 이름지은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 셋째장

하늘이 신인을 내니 토굴이 열리고  
기연인가. 동녀가 돌상자 타고 왔네.  
구름처럼 백세에까지 흘러내려 삼성이 전하니  
정성스런 제사 이제껏 이어오니 묘당이 퇴락하지 않았네.

### 耽拏雜詠 其三

天降神人土穴開 異緣童女石函來  
雲仍百世傳三姓 血食于今廟不頽

제주섬의 개벽과 삼성신화에 대해 노래한 詠史詩이다. 李元鎮「耽羅志;古蹟條」에 따르면 “삼성혈은 제주에서 남쪽으로 3리 쯤 떨어진 곳에 있으니 옛이름은 모흥혈이다. 「고려사」 고기에 이르되 애초에 사람이 없더니 땅에서 세 신이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녘 기슭에 「모흥굴」이라 부르는 혈이 있는데 이것이 그곳이다. 말이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며, 셋째가 부을나이다. 세 사람은 거친 두메에서 사

냥을 하며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  
이 동해변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안에는 석함이 있는데 붉은 띠  
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함을 여니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씨앗이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  
으시고 말씀하시되 서해중의 산기슭에 신자 세 사람이 강탄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  
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라 하여 왔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당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  
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 양을나가 거처하는 것을 제일도라 하고 고을나  
가 거처하는 곳을 제이도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 갔다.<sup>30</sup>

제주섬의 개벽과 삼성신화가 기술되어 있는 이 시는 제주섬이 개벽되고 삼성의 신  
인이 내려와 제주섬에서의 혈거생활이 시작된 이래 오랜 풍상을 겪어 살아 왔지만  
삼성의 후손들이 춘제(4월10일), 추제(10월10일), 혈제(12월 10일) 등 정성스레 제사를  
모시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묘당은 쓰러지지 않았음을 노래하고 있다.

30) 李元鎮 耽羅志 古跡條

三姓穴 在州南三里 卽古毛興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  
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浮 至東海濱就而 開之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  
處女三及諸駒犢五穀鍾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三人以歲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 第一徒 高乙那所居曰 第二徒 夫乙那  
所居曰 第三徒 始播五穀且 牧駒犢日就富庶

## 2. 耽羅의 歷史와 戀君

### 넷째장

하룻밤 객성이 먼 하늘에 비추더니,  
계림천리가 통선을 시작하였네.  
여지껏 온 세상이 탐라라 부름은  
고청이 바다 건너 해부터 전해오는 것일세.

### 耽羅雜詠 其四

一夜客星動遠天 鷄林天里始通船  
至今輿地耽羅號 傳自高清渡海年

신라와 교류한 고청의 일사를 노래한 시이다. 제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여 오다가 드디어 외부와의 교섭을 한 것은 고청의 신라에 가서 조공을 한 이후부터다. 이때까지만 해도 탐라라 불리어 왔다. 본토와 교류를 하기 이전의 제주섬은 외부와의 단절로 말미암아 본토와 두절 고립 및 환해성, 격절성 때문에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사회는 정체되고 전통문화가 강하게 보존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의 역사에서 고청의 일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 다섯째장

조석으로 신라 백제에 속했다가 고려에 항복하고  
다시 호원사자에게 시달리기도 하여,  
최영장군 한번 돌 때 험한 물결 숨죽이니  
그의 꿈은 아직도 나루에 뜬 달이 말하네.

### 耽羅雜詠 其五

朝羅葛濟俄降麗 又附胡元使自疲  
崔瑩一來鯨浪息 將圖猶說月津涯

제주는 처음에 탐라국이었다.<sup>31)</sup> 고려 숙종 때에 이르러 고려의 한 군으로 편입되어 통치를 받았으며, 몽고족의 침입으로 100여년간 외세의 혹독한 시달림을 받기도 하였다. 위의 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노래한 영사시이다.

제주는 왜구의 침입과<sup>32)</sup> 몽고족의 점령으로 그 피해가 큼과 동시에 영향도 많이 받았다. 몽고의 풍습과 말이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고족의 영향은 제주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에도 영향을 끼쳐 제주인은 섬사람들의 기질과 대륙적인 기질을 함께 지니게 되었다. 몽고가 물러가고 나서는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였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최영이 바다를 건넌 것만 보아도 그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를 잘 알 수 있다.

이 시는 단순히 제주가 고려와 몽고에 복속되어 통치당한 사실만은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통치로 인한 영향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시이다.

#### 여섯째장

태조이래 성덕을 베풀더니  
주가의 예악, 우의 산천이여  
크도다 먼 곳 풍속이 살기에 편하다고 마음 먹으니  
백성이 감읍하고 명릉에 은하가 편편히 흐르네

#### 耽羅雜詠 其六

太朝以來王化宣 周家禮樂禹山川  
大哉遠俗懷綬意 民泣明陵雲漢篇

조선조 치국이념인 성리학이 내세운 명분 가운데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이른바 공자의 춘추대의 정신으로서 군신간의 의리가 포함된다. 군신간의 의리는 곧 충으로

31) 「元史」耽羅傳, “耽羅高麗與國也”

32) 李元鎮, 「耽羅志」 “忠惠王後 二年 寇旌義 翌年以七百餘艘來侵”

나타나며 조선조의 선비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삶의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충은 조선조의 통치원리를 이루는 기본적인 사상이었다. 이것은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유배인의 경우라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리어 사화는 불의에 항거하는 의리의 투쟁이라는 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한 충의 정신은 더욱 강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배문학의 내용은 유배지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고독 감에서도 임금을 향한 마음은 불변이어서 한결같이 충신연군지사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sup>33)</sup>

이는 곧 유배지에서 겪는 고초와 유배생활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보다도 군왕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배 문학의 전편에 흐르는 사상이다.<sup>34)</sup> 유배지 속에서도 자기의 결백한 심정과 충성심을 호소하여 멀어진 군왕의 총애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곳곳마다 스며 있다. 본 시의 정서도 이와 같다.

회현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건국한 일 역대 군왕들이 성덕을 베푸니 나라안의 태평함이 마치 周나라의 예약과 厲나의 산천의 모습과 같다고 노래하고 있다.

나라안의 태평성대가 계속되고 편안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회현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회현은 이 때 신임사화로 인한 문제를 상소하다가 귀양을 와 있었다. 회현의 집안은 이 사건으로 三歲門에 가까운 화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릉에 묻힌 숙종대왕을 생각하며 밤하늘에 편편히 흐르는 은하를 보고 성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유배자들은 위와 같은 연군시들을 통하여 돌아서 버린 군왕의 마음을 돌리려 간절히 애소했던 것이다.<sup>35)</sup>

33) 李相寶,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p.17.

34) 梁淳秘, 「앞책」, p.39.

35) 梁淳秘, 「앞책」, p.38.

### 3. 流配地の環境과 五賢祠

#### 일곱째장

목사가 방백의 임무를 겸하니  
병사와 백성은 오롯이 한 관청에 부속되네.  
파도 잔잔하고 상도봉화 경계신호 알림이 없으니  
온종일 생각을 곁들여 풀원에 취하네.

#### 耽拏雜詠 其七

牧使仍兼方伯尊 兵民全屬一衙門  
波清桑島烽無警 盡日笙歌醉橋園

과거 제주도에서는 목사가 부임하여 와서 병권만을 관장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까지도 처리하였다. 곧 관찰사의 직능까지를 포함했던 것이다. 부임하는 목사에 따라서는 선정비를 부임하는 즉시 세우고 중앙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 갖은 수탈과 학정을 일삼았다. 그러한 목사들은 제주 섬사람들의 저항을 받아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사와 백성이 모두 한 아문에 속해 있으면서도 왜적의 침입도 없고 종일토록 생황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제주의 모습은 그런대로 평온한 분위기였다.

유배지에서 유배당한 고통도 서러운데 유배지의 사회마저 어지러우면 회한 자신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긴장된 마음을 지녀야 했기에 자기가 유배당한 곳이 태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용히 앉아 책을 읽으면서 생가가 울려퍼지는 것을 듣노라면 풀원마저도 그 노래소리에 취하여 즐거워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관념적 유희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탐라잡영의 뒤쪽으로 갈수록 애상적인 분위기를 띠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여덟째장

대정이 서쪽에 있고 정의가 동쪽에 있다지만  
벼슬살이가 쓸쓸하여 귀양살이 같다네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라곤 바람과 습기뿐  
고통이 이 곁을 진대 누가 임기까지 견디며 기다리겠는가.

耽拏雜詠 其八

大靜在西旌義東 官居簫索謫居同  
終年飽契惟風瘴 苦況誰堪瓜限窮

회현이 유배된 대정현은 종종 때 김석철의 장계에 의해 유배지로 정해진 곳이다.<sup>36)</sup>

이 대정현은 예부터 토지가 척박하고 바람 많기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대정사람이 앉았던 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대정의 모슬포를 '못살포'로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 유배된 회현은 대정 사람들의 인심만을 탓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척박한 땅, 모진 바람이 부는 대정현에서 벼슬살이하기가 유배살이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유배살이의 고통과 동일시 하고 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이라고는 바람과 습기 뿐, 풍장에 시달려 온갖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 고통스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sup>37)</sup> 유배된 우울한 심적 정황에다가 자신마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모질고 끈질긴 삶을 이어가는 제주섬 사람들의 아픔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6) 「中宗實錄」 권19, 8년계유12월 “京中犯罪定屬人應入濟州者 首屬于此以實殘縣”

37) 金淨 「제주풍토록」, 李健 「제주풍토기」 참조.



### 아홉째장

막대·미투리로 언제면 바다를 건널손가  
굴림추색과 오현의 사당이여  
그 이름 높기로 우암선생이니  
도학의 문장이 백대에 사표가 되리라.

### 耽拏雜詠 其九

杖屨何年此海陲 橘林秋色五賢祠  
高名最是華陽老 道學文章百代師

기약할 수 없는 유배생활에서 언제면 풀릴 것인가 애소하면서도 제주의 현덕으로 기리는 오현을 모신 오현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영사시이다. 오현은 조선조때의 국현으로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동계 정은,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충암 김정, 동계 정은, 우암 송시열은 제주에 유배되어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그 중 충암의 「해도록」을 비롯한 유배 한시와 그의 「제주풍토록」은 뛰어난 문장력으로 문학사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은 제주섬의 풍속, 사회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회현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이 한편의 시에 실어 오현처럼 백대의 사표가 되는 글들을 지어 남기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4. 耽羅의 生活과 風俗

### 열째장

섬의 세족들이 모두 궁하게 사니  
여덟 아홉은 몸소 밭 갈고 겨우 한 둘이 서생이라네.  
그나마 능한 것이라곤 평생 '부'나 많이 짓는 것인데  
별과는 너무 뜬해서 10년도 넘는다네.

耽拏雜詠 其十

島中世族摠窮居 八九躬耕一二書  
長技平生多作賦 別科稀濶十年餘

제주섬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족들 또한 궁하게 살아서 거의 대부분이 밭을 갈며 생활해 나갔는데 세족 서생은 드물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내려주는 국록도 문제가 되지만 불모의 땅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몇몇 글을 읽는 세족도 있었으나 그들도 마냥 글만 읽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하는 제주섬 사람들의 모습을 세족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사대부의 입장에서 볼 때 선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풍속이 아름답지 못함을 의미한다.

열한째장

풍속에 힘겨루기, 활다루기 좋아하니  
사렵하기는 능히 어지러운 돌 틈새도 내달을 수 있다네  
홍지를 감추어 오니 급기야 다 색이 흰머리되니,  
모르랴라, 사마도 사사로운 공적을 운영하는 것인지

耽拏雜詠 其十一

俗風豪健喜操弓 射獵能馳亂石中  
紅紙臟來仍白首 不關司馬政私公

생활풍속에 제주섬 사람들은 힘겨루기와 활쏘기를 잘 한다. 아무리 활쏘기를 좋아한다고 하여도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의가 빚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사마도 사사롭게 공적을 운영하는 것인지, 사마의 할 일에 빚대어 노래하고 있다.

조선후기 관직의 매매와 돈으로 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능 또는 무관심을 풍자하고 있다.

열두째장

문무에 원래 높은 벼슬을 한 자가 드물고  
한번 벼슬을 재수받으면 오랫동안 한가하네.  
오로지 성에는 온 집안이 나가지 못하고  
부너는 편벽되어 바다 건너기 어려워 한다네.

耽拏雜詠 其十二

文武元來少顯官 一經除目便長閑  
專城未得全家赴 婦女偏嫌渡海難

제주섬 사람들은 환경 탓인지 문무의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드물고, 그것도 한번 낮은 관직을 재수하면 그것으로 오랫동안 지낸다. 출타하여 꿈을 이루려 하여도 바다 건너 나가기를 꺼리어 어쩔 수가 없다.

위 시는 제주섬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열셋째장

사냥꾼들과 마소치는 집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루고  
토끼털 모자, 개가죽 옷을 걸치니 노소가 섞여 모르겠구나.  
괴상하게 찌르는 듯한 사투리는 뱀새가 지저귀는 것 같고  
새 울음 온종일 들으니 도리어 어지럽구나.

耽拏雜詠 其十三

獵丁牧戶自成村 兔帽狗衣老少渾  
怪殺方音如鵲舌 網啾終日聽遺煩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하여도 제주의 화전민들은 개가죽 옷을 입었다. 이는 실제 생활의 궁핍상과 화전생활의 일상성을 보여주는 좋은 한 예가 되고 있다. 과거의

사실적인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미화를 거부하게 만든다.

남녀 노소가 모여사는 촌락에 가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 소리가 마치 올빼미 소리와 같다고 한 것은 제주 방언이 본토의 말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sup>38)</sup>

무슨 말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아 듣지 못하므로 회현에게는 마치 지저귀는 뱀새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외롭게 구슬피 우는 새소리는 유배인으로 하여금 한없는 감회에 젖게하여 잠시나마 잊고 있던 번뇌에 사로 잡히게 한다. 여기서 회현은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은 제주섬에 유배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을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 시는 화헌자신이 제주섬사람들의 생활속에 동화되지 못하고 눈에 띄는 풍속의 생소함을 노래한 것이다.

#### 열넷째장

시골 아낙네 치마 부실하여 몸드러내고  
먼 곳 샘물을 길러 허벅지고 간다네.  
처참 한 집안살이 고통스러워  
해 저물면 절구짙는 노래 원성같이 들리네.

#### 耽拏雜詠 其十四

村女露身裙不成 遠泉汲處負瓶行  
兩妻一室生涯苦 日暮杵歌多怨聲

제주섬의 아낙과 어려운 가정생활을 노래한 시이다. 제주도는 건천이어서 식수난이 심했다. 아침저녁으로 허벅을 지고 물을 길어와서 방아로 쌀 찧어 밥짓는 게 일과의 시작이다. 제주섬의 아낙네들은 부지런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기에 숙명적이었는지 모른다.

38) 金淨, 「제주풍토록」, “土人語音 細高如針刺 且多不可曉 居之既久 自能通文 古云兒童解蠻語者此也”

맷돌 방아노래의 그 음조가 애달프게 들리고 방앗일 역시 괴로워 그것이 원성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읍지의 풍속에도 “방앗노래 소리는 괴롭게 들린다. 아낙네가 절구를 찼을 때 반드시 방앗노래를 한다. 그 음조가 심히 괴롭게 들린다. 맷돌방아를 할 때도 그렇다.”<sup>39)</sup>고 한 것을 보면 회헌의 위의 시는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유배인들이 제주에 유배당해 와서 그 울직한 심정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시를 쓰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면, 첫째 자신의 인생과 제주의 자연에 대한 관조를 노래하였고, 둘째 이국적 정서, 풍물, 풍습, 인정 등을 소재로 하여 유배인 특유의 정서로 노래하기도 하는데 이 시는 곧 이국적 정서, 풍물, 풍습, 인정을 읊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시골 아낙네가 몸을 드러내어 치마를 입지 않았다는 표현은 섬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다.

처첩이 한 지아비와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살면서 겪는 고통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주인들은 그러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제주민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맷돌 방아노래”를 통해 잠시나마 잊고자 하였다. 회헌은 그러한 원성과도 같은 애처로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제주섬 아낙들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해서 자기가 받는 고통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sup>40)</sup>

이 시는 제주섬 아낙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표현 하면서 내재적인 연민을 보이고 있다.

#### 열다섯째장

노인성이 남극에서 밝게 빛나고  
백살난 시골 노인 기력이 단단하도다.  
향사에는 봄가을없이 노인들이 모이니  
칠십난 이들을 오히려 소년이라 여긴다네.

39) 「邑誌」, “杵歌聲苦 女人作隊 搗舂必發杵歌 音調甚苦 旋磨亦然”

40) 梁淳秘,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梁重海박사회갑논총」, 1987, p. 264.

### 耽拏雜詠 其十五

老人南極耀團團 百歲村翁氣力完  
鄉社春秋鳩杖會 七旬猶作少年看

제주의 노인들의 한가로이 향사에 모인 모습을 노래한 시이다. 노인성의 별빛이 밝게 빛나는 것은 전란이 없어 화평스런 상황임을 말해 준다.

이렇게 태평한 사회에서 아직도 기력이 단단한 노인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향사에 모이는데 칠십난 노인들을 오히려 소년이라고 여길 정도로 제주섬 노인들의 장수함을 부러워하고 있다.

## 5. 耽羅의 進上品들

### 열여섯째장

은 집마다 꿀열어 늦서리 맞으니  
크고 작은 차이마다 맛 각각 향기롭구나.  
해마다 포장하여 항상 일찍 진상하면  
임금은 여가에 근신들에게 맛보도록 하네.

### 耽拏雜詠 其十六

千家柑橘九秋霜 大小參差味各香  
每歲厥包常早運 君餘輒許近臣嘗

제주의 명산인 감귤을 노래하고 있다. 감귤은 서리를 맞았을 때가 더 맛이 난다. 크고 작은 귤을 생산하기 위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제주에서 중앙으로 진상하는 품목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했는데 그 중에 으뜸가

는 것이 바로 감귤이었다. 결실하기 전부터 그 예상 수확량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일, 수확한 뒤에 그것을 진상하는 일은 제주섬 사람들에게겐 크게 고통을 주어 왔었기에 심지어는 나무 뿌리를 잘라서 죽여버리는 일도 있었다.

세조 원년 12월에 제주 목사에게 유시하기를 감귤은 종묘에 천신하고 손님을 대접하므로 그 용도가 매우 적절하다고 하였다. 현의자가 말하기를 “감귤, 유감, 동정귤은 상품이고 유자 산귤 등은 하품입니다. 민가에서는 양지 바른 울타리 안에 심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잘 밟으니 뿌리가 든든하여 결실도 좋습니다. 관의 과원은 너무 많이 심어서 뿌리가 뻣뻣하고 무성하여 해충이 쉽게 생기므로 공은 많이 드나 결실은 민가만 하지 못합니다. 관가에서는 공물을 채우기 위하여 민가에서 결실한 것을 여름에 치부했다가 가을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면 엄형으로 다스리니 민가에서는 꺾나무 심기를 즐기지 않고 심은 것도 뽑아 버리기까지 하니 다음부터는 잘 재배하는 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하여 구휼하고 관에서 스스로 운반하여 나무 임자를 수고롭게 마시옵소서.”라고 하였다.<sup>41)</sup> 이에 민폐를 금지하는 교시가 있었으나 민폐는 그치지 아니하여 중종 21년에는 관이 과원을 설치 그곳을 관리하는 군인을 들 정도였다.

귤 진상은 9월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까지 20회에 나누어 10일 간격으로 진상하였다. 진상할 귤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났다가 琉球國에 표류한 일도 있었다. 성종 실록에 전하는 제주인 김비의, 강무, 이정 세 사람의 표류는 역사적 자료로 또는 이색적인 수필문학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다.

“우리들은 정유(성종 8년 1477년) 2월 초하룻날에 현세수, 김득산, 이청민, 양성돌, 귀봉들과 함께 진상할 귤을 배에 싣고 바다로 떠났다. 그런데 추자섬을 향할 무렵 동풍이 불어서 서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제6일까지는 바다는 맑고 푸르렀고 제7일 8일의 하룻동안은 바다가 흐렸다. 제9일에 서풍을 만나서 남쪽으로 표류했는데 바닷물은 맑았다. 제14일 되는날 한 작은 섬이 보여 그 섬에 오르려고 했는데 마침 노가 부러지고 배가 깨어지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41)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pp.98-99. 제주에는 옛부터 감귤이 특산물이었으며 趙貞喆은 제주유배 때 「橘柚品題」란 시를 지음.

죽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도 모두 잃어 버렸다. 우리 세 사람(김비의, 강무, 이정)은 판목 한 조각을 붙들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행히 고기잡이 배 두 척을 만났는데 각각 네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배에 실어 주어서 살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은 운이시마라고 했다”.<sup>42)</sup>

위의 인용에서 보면 제주에서 본토로 굴진상을 위한 해상 왕래는 생사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회현이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다. 임금은 진상한 감귤을 근신들에게 맛보게 하고 황감시라는 특별한 과장을 열기도 했지만 그 굴을 진상키 위해 겪는 제주섬 사람들의 고통은 대단한 것이었다.

#### 열입곱째장

대원에 그 종류가 기주와 견줄만 한데,  
구름같은 비단이 흩어져서 아주 아름답게 펼쳐졌네.  
목사가 해마다 공물을 닦는 것을 보니  
천재가 반인데 살고 색은 주황이다.

#### 耽拏雜詠 其十七

大宛其種冀州方 雲錦離披萬匹良  
考牧年年修職貢 天才居半色朱黃

구름처럼 아름다운 진상품 비단을 비롯해 목사가 공물을 해마다 닦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상품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섬사람들이 애써모아 바친 진상

42) 「成宗實錄」, 권105, 10년 6월조.

俺等 丁酉二月初一日 與玄世修 金得山 李清敏 梁成突 曹貴奉 陪受進 上柑子 同騎一船 開洋向楸子島 忽值東風大起 西向漂流 自初發生至第六日 海水澄碧 自第七日至八日 行一晝夜 渾濁如泔 第九日 又遭西風 向南漂流 海水澄碧 第十四日 望一小島 未及泊岸 柁折船毀 餘人皆溺死 裝載盤纏 亦皆洽失 俺等三人 騎坐一板 漂蕩間 適有漁舟二隻 各有四人 騎坐 見我輩收載而去 到島岸 島名閔伊是磨 其俗謂島爲是磨.



품들을 아주소중하게 다루어 바치려는 것은 좌천되거나 중앙의 관심을 잃어 부임한 현지의 목사 자리에서 하루속히 조정의 인정을 받고 영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지방의 목민관인 목사가 중앙의 조정에 상납할 진상품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은 당시의 제주 목민관의 실정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섬사람에게서 빼앗은 진상품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열여덟째장

나패 보주 대위가 갖추어 있고  
 청피 백랍 석종유도 있다네,  
 진기한 미료는 이 땅을 일컬으니  
 이같은 물산의 유래는 팔도에 없겠네.

### 耽拏雜詠 其十八

螺貝蠟珠玳瑁俱    青皮白蠟石鍾酥  
 奇珍美料稱茲土    物產由來八路無

진기한 물건들이 다른 지방에는 없고 제주섬에만 있다는 것을 노래한 영물시이다.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진상품이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 진기하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건의 진상품과 그 진상품을 구하기 위해 애쓴 제주섬 사람들의 고통스런 노고는 비례한다.

제주에서 조정으로 진상되는 물품은 이밖에도 상당히 많다. 진상품을 구하기 위하여 섬 사람들은 목사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으며 세세년년 다달이 부대껴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 도민들의 진상품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玳瑁, 栗膏, 牛毛, 柑子, 榧子, 柚子, 乳柑, 洞庭橘, 金橘, 山橘, 金鮑, 槌鮑, 烏賊魚, 王頭魚, 昆布, 山柚子木, 二年木, 榧子木, 良馬, 藥材, 陳皮, 山藥, 石解, 川練子, 白芷, 八角, 零陵香, 五倍子, 梔子香, 附子木爪,

紫胡, 靑皮, 白扁豆, 草烏頭, 海東皮厚朴, 烏魚骨, 杜冲, 蔓荊子, 石決明, 牛夏, 黃菊, 舶上, 茴香, 枳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sup>43)</sup>

## 6. 流配와 그 情感

### 열아홉째장

겨울에는 매운 바람에 시달리고 여름엔 지리한 장마인데  
벌레와 뱀은 독기가 많고 서로 번갈아 침범한다네.  
주민들은 산에 범이 없음을 요행으로 생각하며  
밤중 깊은 수풀 지나면서도 마음을 놓는구나.

### 耽羅雜詠 其十九

冬日苦風夏苦霖 蟲蛇多毒更相侵  
居人只幸山無虎 夜過深林赤放心

제주는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맑아서 보통 병에 걸리는 사람이 적은 대신 풍토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았다. 생활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독충과 뱀 등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다 모진 바람과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니 유배인들은 유배당한 사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대단한 마당에 모진 바람과 독충에 시달린다는 것은 대단한 고통이었을 것이다.<sup>44)</sup>

제주섬 사람들이 산에 범이 없다고 마음놓고 돌아 다닐을 부러워하면서 회헌 자신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43) 「世宗實錄地理志」

44) 李健, 「제주풍토기」, “瘴癘所鍾 海毒所蒸 最畏者蛇蝎也”

스무째장

봉우리 높아서 바라보니 하늘에 닿아  
기승하여 백록담이라 불리네.  
들으니 산방도 또한 가경이라  
등그런 석굴이 암자 같다네.

耽拏雜詠 其二十

峰高穴望興天參 奇勝仍稱白鹿潭  
聞說山房赤佳境 穹然石窟坐如庵

제주의 많은 경관 중에서 백록담과 산방굴을 노래한 영물시이다. 듣건대 경치좋은 산방굴속에 앉으면 암자에 앉은 것 같다. 그러한 암자에서 도를 닦는 수도승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는 유배된 심정을 온갖 세상사와 시름을 잊어버리고 자연을 응시하면서 자연에의 몰입을 노래하고 있다.

제주의 아름다움 자연을 문학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표출하고 외부에 소개한 이들도 또한 유배인들이었다.<sup>45)</sup>

스물한째장

바닷길 아득하여 구백리가 넘는데  
뚝단배는 순풍이 부는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네.  
사공이 가장 마음 쓰는 일은  
화탈도 서쪽 수세가 요동치는 곳이라네.

45) 瀛洲十景을 한시로 노래한 것은 유배인이었다. 1933년 조무빈의 <李在秀實記>와 김두봉의 <濟州島實記> 속엔 <瀛洲十景歌>가 수록되고 있는데 가사형식이다.

耽拏雜詠 其二十一

海路蒼茫九百遙 帆檣必待好風朝  
行人最有勞心處 火說島西水勢搖

그 언젠가 자기를 싣고 갈 배의 돛은 잔잔한 바람이 이는 아침을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바닷길은 망망하고 멀기만 하다고 노래한 자탄시이다.

회현은 그 돛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출륙해서 복권의 날을 고대하고 있으나 성은 이 미치기에는 너무나 망망하고 먼 바다이다.

유배당한 자신의 우울한 처지를 달래고 있는 회현은 그 돛을 보고 창망한 바다를 보았을 때 더욱 갈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는 조용히 자기 내부에서 바깥으로 눈을 돌려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고가는 하는 해로에는 화탈도가 있다.

화탈도에 대화탈도와 소화탈도가 있다. 대화탈도는 조공천 일백여리에 있고 석벽이 삭립해 있고 소화탈도는 거애월포 오십여리에 있고 석봉에 돌입해 있어 속칭 관탈섬이라고 하기도 한다. 유배인들이 전라도 해남지방을 통해 추자도를 경유해 제주의 화북에 입도하게 된다. 관탈섬을 지날 때는 지난 시절의 미련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모두 떨쳐 버리고 오직 유배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차 관모와 의관을 벗어버렸다는 전설이 아직까지 전해 지고 있다. 그런 요동치는 화탈도 서쪽 수세를 언재면 건너갈 것인가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스물두째장

풍파와 장려로 나그네 수심에 잠기니  
대죄로 제주에 유배됨도 마땅하구나.  
나는 스스로 속골이 아니라고 하지만,  
귀양와서 영주에 살고 있다.

耽拏雜詠 其二十二

風波瘴癘客堪愁 大罪還宜此地投  
自是吾人非俗骨 謫居猶得在瀛洲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기 체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시이다. 여러가지 회한에 찬 감정을 압축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조용히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며 체념하는 심정으로 유배당한 사실을 심적으로 부인함을 노래한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유배당하여 적거한다고 하기보다 제주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자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이 정치하던 시절, 두 고온 가족, 봉당에 대한 추억, 군왕에 대한 회포의 정 등 여러가지 복합된 감정들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를 견뎌내야 하는 회한은 유배적 상황에 처한 자신의 감정을 이 시를 통하여 승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V. 耽羅雜詠의 國文學史的 位置

한 시인의 작품은 바로 그 시인의 분신이다. 한 시인의 국문학사적 위치를 설정함에 있어 그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분석 고찰하여야만 완전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회현의 「耽羅雜詠」 22수만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유배인들은 외로움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제2의 탄생과도 같은 창조적 집념에 생명을 걸어야만 했다. 그러기에 유배지에서 창조적 정열로 스스로의 절망을 이겨낸 유배인들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은 찬란한 문학의 꽃을 피웠다.

유배인들은 유배지에서의 격리된 생활을 자기완성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수용하였다. 현실에서 격리되었을 때 그러한 소외상태에서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것들을 파악하게 되고 모순에 대한 극복 논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유배생활을 깊은 연구에 몰두하는 계기로 삼거나 현실의 모순을 개혁할 이론을 확립하거나 예술을 창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한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사회가 만들어낸 문학을 통하는 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유배시가의 특성이 신상탄과 은둔도피, 우시연군 등이 지배적으로 강한데 비해 회현 조관빈의 「耽羅雜詠」 22수는 그러한 특성보다 귀양살이 하고 있는 제주섬의 역사, 풍속, 사회, 풍물, 인정 따위를 노래하고 있어 竹枝詞類의 시와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시가에 나타난 지명, 인명 등은 중국의 것이 많이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배를 계기로 자기 고향을 떠나 타지방으로 격리되었다는 것은 타지방의 새로운 발견 이상의 충격이 되었다.

회현은 불과 8개월 밖에 안되는 제주섬의 유배살이를 통해 중국과 중앙 일변도의 문학의 소재를 제주섬의 역사, 신화, 풍속, 생활상 등을 잡영이란 연작시 형태로 노래하였다는 것은 국문학사상 특기할 만한 일이다. 유배지에서 읊은 죽지사류의 잡영은 유배지 제주섬에서 씌어진 정조때 趙貞喆의 「耽羅雜詠」으로 이어지고 순조때 유배지 김해에서 씌어진 이학규의 「金官竹枝詞」로 이어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후일 융희 3년경 김문숙의 「耽羅竹枝詞」와 국권이 일제에 의해 찬탈된 항쟁기에 이남규가 쓴 「永興雜詠」도 이런 잡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 VI. 結 論

제주섬은 정치적 유배자가 流三千里의 형으로 위리안치되는 최악의 유배지였고 그 중 대정현은 원악지 도배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이제까지 영조 때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悔軒 趙觀彬의「耽羅雜詠」 22수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배문학이란 유형수가 조선조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겪은 유배적 사실의 직접체험과 그 감정적 내용, 그리고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신적 상황을 문학화한 것이다. 특히 제주유배 문학은 유형수가 제주섬을 유배지로 설정되어 형성된 문학을 뜻한다.

2) 회헌 조관빈은 1731년(영조 7년) 대사헌에 재직중 신임사화의 전말을 상소하여 소론의 영수 李光佐를 탄핵하였다가 당파심에 의한 사감으로 대신을 논척하였다는 이유로 영조의 배척을 받아 제주섬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던 유배인이다.

3) 회헌 조관빈은 절해고도 제주섬에서 유배기간 동안 제주섬 사회의 실정을 인식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유배적 상황에 직면, 치열한 자아성찰을 통하여 우수한 유배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4) 회헌 조관빈의「耽羅雜詠」 22수에 나타난 그의 문학세계는 제1수에서 제22수까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여 비로소 회헌은 자신의 경험세계에 제주섬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제주섬의 자연·풍속 등을 소개, 국문학의 소재 확장에 지대하게 공헌하였다. 고전시가의 소재가 주로 중국을 소재로 하거나 중국지명 또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 지배적임에 비해 「탐라잡영」은 유배지의 지명과 유배지를 소재로 하여 시를 형상화 했다는 점에서 그 국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5) 회헌 조관빈의「耽羅雜詠」에는 첫째 탐라의 위치와 한라산, 그리고 신화, 둘째 탐라의 역사와 연군, 셋째 유배지의 환경과 오현사, 넷째 탐라의 생활과 풍속 다섯

째 탐라의 진상품들, 여섯째 유배와 그 정감 등이 표출되어 있다. 그중에도 제주인의 생활상, 이속적인 풍경, 노인장수, 감귤과 진상품 유배된 자신의 불우한 정감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6) 회헌의「耽羅雜詠」은 다른 유배시가의 특성이 신상탄과 은둔도피, 우시연군 등이 지배적임에 비해 귀양살이 하고 있는 제주섬의 역사, 사회, 풍물, 풍습, 인정 등을 읊어져 竹枝詞類의 시의 내용을 읊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회헌 조관빈의 「탐라잡영」은 훗날 정조 때 대정현에 유배된 그의 종손자인 靜軒 趙貞喆의 「耽羅雜詠」을 형성케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7) 회헌 조관빈의 「耽羅雜詠」을 바탕으로 한 그의 문집 「悔軒集」에 수록된 시문학의 총체적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 參 考 文 獻

### I

- 「元史」  
「瀛洲誌」  
金淨, 「濟州風土錄」  
李健, 「濟州風土記」  
趙觀彬, 「悔軒集」  
趙貞喆, 「靜軒瀛海處坎錄」  
李元鎮, 「耽羅志」  
李建昌, 「黨議通略」

### II

- 金炳傑, 「리얼리즘 文學論」, 乙酉文化社, 1976.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金鵬九, 「作家와 社會」, 一潮閣, 1977.  
金允植, 김 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7.  
金治洙, 「文學社會學을 위하여」, 文學과 知性社, 1988.  
김 현, 「韓國文學의 位相」, 文學과 知性社, 1978.  
文淳太, 「流配地」, 語文叢書, 語文閣, 1983.  
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上·下), 二友出版社, 1980.  
梁淳秘, 「李潮流配文學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9.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_\_\_\_\_, 「濟州流配漢詩研究」,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983.

- \_\_\_\_\_, “文學社會學的 시각에서의 流配文學攷”, 「金起東박사회갑기념논총」, 1986.
- \_\_\_\_\_, “流配漢詩에 나타난 現實認識”, 「梁重海박사회갑논총」, 1987.
- \_\_\_\_\_, “金淨의 濟州風土錄”, 「어문연구」 7권3호, 1979.
- \_\_\_\_\_, “李健의 濟州風土記”, 「어문논집」 제20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1.
- \_\_\_\_\_, “流配文學에 나타난 작가의 社會的 性格攷”, 「朴堯順先生華甲紀念論集」, 1987.
- \_\_\_\_\_, “趙觀彬의 耽羅雜詠考”, 「송하 이종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9.
- \_\_\_\_\_, “耽羅竹枝詞小考”, 「金洪植교수 회갑논총」, 1990.
-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7.
- 이선영, 「작가와 현실」, 평민사, 1979.
- 林鍾國, 「韓國文學의 社會史」, 정음사, 1974.
- 趙孟洙, 「제주의 섬」, 조약돌, 1986.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77.
- 황패강 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4.
- A·하우저, 「文學과 藝術의 社會史」, 백낙청·염무웅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76.
- M·뉴우먼 외, 「自我發見의 길」, 安東民 옮김, 문예출판사, 1976.
- 미셀제라파, 「小説과 社會」, 李東烈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78.

---

Summary

A study on Hoe-hŏn Cho Kwan-bin's  
"Tamna Miscellaneous Poems"

Kim Yun-jung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oon-pil

Cheju Island was one of the worst places of exiles. Many an exile suffered political ostracism had been sent to the remote island and there confined in the house enclosed with a hedge of thorny bushes. The prefecture of Taejŏng-hyŏn in Cheju was the typical rugged country for banishing.

So for in the paper there have been analyzed the 22 pieces of "Tamna Chabyŏng (Miscellaneous Poems) written by Cho, Kwan-bin during his exile in Taejŏng.

The summary is as follows :

1) Literature of exile is to be defined as a form of literature which shows direct experiences, emotions and spiritual lives of a writer and politician exiled owing to the periodical and political state of the Chosŏn Dynasty. Especially, literature of Cheju-exile was the literature formed by exiles banned to Cheju Island during their exile.

2) Hoehŏn (Cho, Kwan-bin's pseudonym) was exiled to Taejŏng by king Yŏng-jo for bearing a factual grudge against a minister.

In the 7th year of King Yŏng-jo (1731), serving as Taesahŏn, he had

impeached Yi, Kwang-jwa, the leader of the party of Soron, for Shinim Sahwa (The Shinim Calamity of Savants) by way of presenting a memorial to the king.

3) Hoehòn spent the period of exile usefully, recognizing the social realities of the isolated island. Through his severe self-examination, he created remarkable works of literature of exile, confronting the difficulties of exile.

4) His literary works showed in "Tamna Chabyóng" are characterized by successive construction from the 1st poem to the 22nd poem.

The poems show his recognition of the island as his own experiential reality. He poetized the nature and the custom of the island itself, which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expanding subject matters of Korean literature. While most subject matters of classical poetry had close relations to place names of China or Chinese folklore, the subject matters of "Tamna Chabyóng" have relations to place names of exile and the island itself. In this respect the poems have a historic significance of Korean literature.

5) In the poems, there are described such as follows : first, the location of Tamna and Mt. Halla and myths; second, the history of Tamna and the longing for the King; third, the condition of the place of exile and the history of O-hyon; fourth, the ways of lives in Tamna and the custom; fifth, the presents to the King; last, the exile itself and emotions. Among them, there are specially well-described the living conditions of Cheju countrymen, the scenery of strange customs, an old peddler, the oranges and presents to the King, and the exile's miserable emotions.

6) While the characteristics of many other poems of this kind lie in the general composition of seclusion, escape, patriotic, sentiment, wailing ill fortunate and longing for the King, those of "Tamna Chabyóng" lie in the composition of such as the history, society, scenery and customs and manners

---

of the place of exile.

And it can be said that Hoehôn's "Tamna Chabyông" had an influence on the same-titled poems composed by Cho, Chông-ch'ól(Chônghôn) , who was Hoehôn's brother's grandson and was exiled to the same place in the years of King Chông-jo.

7) The whole poetry written in Hõehon-jip, a collecton of Hoehôn's works, are supposed to be studied in general on the foundation of study on "Tamna Chabyông" .



其二十一

海路蒼茫九百遙  
帆檣必待好風朝  
行人最有勞心處  
火脫島西水勢搖

其二十二

風波瘴癘客堪愁  
大弄還宜此地投  
自是吾人非俗骨  
請居猶得在瀛洲



言天才居半色亦貴

其十八

螺貝蟻珠玳瑁俱青皮白蠟石鍾酥奇珍美料稱茲  
土物產由來入路無

其十九

冬日苦風夏苦霖蟲蛇多毒夏相侵居人只幸山無  
虎夜過深林亦放心

其二十

峰高穴望與天參奇勝仍稱白鹿潭蘭說山房亦佳  
境穹然石窟坐如庵

村女露身裙不成遠泉汲處負篋行兩妻一室生涯  
苦日暮并歌多怨聲

其十五

老人南極耀團團百歲村翁氣力完鄉社春秋鳩杖  
會七旬猶作少年看

其十六

千家桔橘九秋霜大小參差味各香每歲厥旬常早  
暹君餘輒許近臣嘗

其十七

大宛其種冀州方雲錦離披萬匹良考牧年年修職



其十一

俗風豪健喜操弓射獵能馳亂石中紅紙藏來仍白  
首不關司馬政私公

其十二

文武元來少顯官一經除目復長閒亭城未得全家  
赴婦女偏嫌渡海難

其十三

獵了牧戶自成村兔帽狗衣老少渾怪殺方音如鴉  
舌啁啾終日聽還煩

其十四

警盡日笙歌醉橘園

其八

大靜在西旌義東官居壽索請居同終年飽喫惟風  
瘴苦况誰堪瓜限窮

其九

杖屨何年此海陲橘林秋色五賢祠高名最是華陽  
老道學文章百代師

其十

島中世族揔窮居八九躬耕一二言長技平生多作  
賦別科稀澗十年餘

一  
夜客星動遠天  
雞林千里始通船  
三  
今異地耽羅  
號傳自  
高  
清渡海年

其三

朝  
羅  
暮  
濟  
俄  
降  
麗  
又  
附  
胡  
元  
使  
者  
疲  
雀  
竺  
竺  
一  
來  
驚  
浪  
息  
壯  
圖  
猶  
說  
月  
津  
涯

其六

太  
祖  
以  
來  
王  
化  
宣  
周  
家  
禮  
樂  
身  
山  
川  
入  
哉  
遠  
俗  
懷  
綏  
意  
民  
泣  
明  
陵  
雲  
漢  
篇

其七

牧  
使  
仍  
兼  
方  
伯  
尊  
兵  
民  
全  
屬  
一  
衙  
門  
浪  
清  
桑  
島  
烽  
無

耽羅雜詠

耽羅一域最荒垠四面滄溟水接雲南則琉球東日本西惟中國杭蘇云

其二

漢壑黑立勢周遣入海中間湧出高嶺號瀛洲非浪語半空笙鶴有仙曹

其三

天降神人土穴開異緣童女石函來雲仍百世傳三姓血食于今廟不頽

其四

附 錄

悔軒集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